



국내 최고 치의학 박물관 서울치대에 개관  
치의학 관련 유물 1천여점 전시



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치의학 박물관이 마침내 문을 열었다. 서울치대(학장 鄭鍾平)는 서울치대 건물 1층에 40여평 규모의 전시실을 마련, 1000여점의 치의학 관련 유물을 전시하는 등 2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28일 박물관 개관식을 가졌다. 이날 개관식은 1층 강의실에서 간단한 기념식을 마치고 박물관 입구에서 테이프 커팅을 한 뒤 전시장 내부를 둘러보는 순서로 진행됐다.

한국 치의학의 역사인 서울치대에 치의학 박물관에 개관함으로써 외국 방문자들에게 한국 치의학의 발달사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치과계의 유용한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치대 치의학박물관은 치과대학의 역사와 치의학사라는 큰 주제로 전시돼 경성치과 의학교가 개원했던 저경궁지 기념비와 초대학장 관련 유물, 경성치과 의학전문학교 직인, 19세기 말 학생교육용 교재와 실험기구, 졸업증서와 앨범, 1940년대 유니트체어와 엑스레이, 초창기 구강외과 기구, 1950-60년대 진료기구 및 약품 등이 전시돼 있다. 또한 군진치의학의 역사와 학술활동 발전사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서울치대 치의학박물관은 치과대학의 역사와 치의학사라는 큰 주제로 전시돼

韓秀夫(한수부) 관장은 “개관하는데 아낌없는 후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동문들과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치의학과 관련된 유물을 지속적으로 수집, 전시, 교육해 치의학 자료보존소 및 자료창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지공길 국립중앙박물관장, 이종상 서울대 중앙박물관장, 유방섭 동문, 김규택 경희치대 초대학장, 林炯淳(임형순) 치협 부회장, 김주환 대한구강보건협회 회장, 孫興奎(손흥규) 연세치대 학장, 梁源植(양원식) 서울치대동창회장 등 내빈들과 鄭鍾平(정종평) 학장 등 서울 치대 교수, 개원의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외국치대 졸업생 겨우 10명 합격  
국시결과 171명 중 5.8%만 붙어

외국 치대 졸업생에 대한 예비시험이 도입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지난 15일 치뤄진 제54회 치과 의사 국가시험에서 외국 치대 졸업자는 겨우 10명만이 합격함으로써 지난 92년 이후 가장 적은 합격자를 배출하게 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백상호)이 1월 24일 발표한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국내외를 포함 1007명이 응시해 789명이 합격, 지난해 합격률 80.0%보다 낮은 78.35%의 합격률을 보였다.

이중 외국치대 출신자는 총 71명이 응시해 10명이 합격, 5.85%의 저조한 합격률을 보여 지난해 61명이 합격한 25.9%의 합격률에 비해 훨씬 낮아졌으며 이에 따라 전체 합격률도 낮아졌다.

10명의 외국치대 합격자 중 필리핀치대 출신이 7명, 미국치대 출신이 2명, 브라질 치대 출신이 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국시에서 국내 치대생은 836명이 응시, 779명이 합격해 93.13%의 합격률로 지난해 보다 다소 높아졌다. 전체 수석은 340점 만점에 299.5점을 받은 경북치대 김민정 양이 차지했다.

한편 최근 시행된 치의학국시에서 외국치대생 합격률과 합격자수는 △96년 7.6%, 25명 △97년 42.2%, 2백명 △98년 16.4%, 63명 △99년 25.1%, 91명 △2000년 9.7%, 27명 △2001년 25.9%, 61명이었다. 전체합격률은 △96년 62.4% △97년 77.5% △98년 65.7% △99년 74.8% △2000년 70.3% △2001년 80.0%였으며 국내치대생만의 합격률은 △96년 85.9% △97년 96.9% △98년 90.8% △99년 97.7% △2000년 91.7% △96년 62.4% △2001년 95.5%였다.

## 서울·경희·경북·전남·전북치대 전문대학원 도입 결정

### 2003년부터 신입생 선발 안해

서울대와 연세대, 한양대 등 대다수의 의과대학에서 의학전문대학원(학사+4) 도입을 보류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경희, 경북, 전남, 전북치대는 도입키로 확정했다. 연세, 조선, 강릉, 부산, 단국, 원광치대는 내년부터 바로 도입하는 것을 일단 유보하고 추이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교육인적자원부가 본격 추진한 치의학?의학 대학원제는 5개 치과대학이 참여하고 나머지 6개 대학은 일단 1~2년 도입을 미루는 형태로 전개되게 됐다.

서울치대는 1월 31일 임시교수 회의를 열고 치의학전문대학원 도입에 관한 입장을 논의,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2003학년도부터 치의학 전문대학원을 도입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치대는 2003학년도부터 신입생을 아예 선발하지 않고 2005학년도부터 치의학 전문대학원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과출신과 취득학위가 다른점, 수업년간 차이, 교육비 부담 증가 등 도입에 따른 문제점들이 제기되었으나, 내년부터 전문대학원을 도입키로 최종 확정하고 이같은 입장을 대학본부에 전달했다.

이 방안이 서울대 본부를 통과하면 타 학부 전공에 상관없이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치의학 교육입문시험(DEET) 등 대학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90명의 전문대학원 신입생을 2005년부터 선발하게 된다. 한편 서울대 본부에서는 치대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할 생각이지만 전문대학원 도입을 반대하는 의대와외의 관계 등을 고려해 최종 방침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입을 최종 확정할 경희치대도 2003년과 2004년에 예과생을 받지 않고 2005년부터 학사취득자를 대상으로 신입생을 모집하게 된다.

경희치대는 현재 제도는 오히려 우수한 학생을 게으른 학생으로 만들 수 있으며, 치과 의사가 되는데 최고 우수

한 학생만을 고집하는 것도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경희치대는 현재 치의학 전문대학원 체제로 가기 위해 교과개편을 발빠르게 준비중 이다.

경북치대는 지방치대로서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서는 재정 등을 지원 받아 치의학 교육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기회가 없고 다양한 학문을 경험한 학생들이 들어와야 치의학 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생각이다.

전북치대는 기초 치의학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 교수 확보와 시설투자를 늘려야한다는데 전체교수의 의견이 모아졌다. 전북치대는 대다수의 의대가 불참하는 것과 관련, 의대 쪽은 더 이상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을 것이 없다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치대는 기초학육성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생각이다.

전남치대는 두번의 회의 진통 끝에 다수의 교수들이 치의학 전문대학원을 도입키로 결정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치의학 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연구 착수 초기부터 이 제도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 였던 연세치대는 의대가 1년 유보로 일단 결정된 가운데 2일 전체 교수워크숍을 열고, 장시간 마라톤 회의를 벌였으나 의대와 마찬가지로 1년유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 부산치대의 경우 국립치대라는 특성을 감안해볼 때 의대가 실시하지 않는다면 치대도 재정지원이 사실상 불투명해지고, 오히려 우수 학생을 서울지역에 빼앗길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우세, 결국 유보로 결정됐다.

단국치대와 조선치대는 치의학전문대학원 성공여부가 불확실한 실정에서 1년간 도입을 지켜 본다는 입장이며 신생치대로서 비교적 정부지원을 많이 받은 강릉치대의 경우도 전문대학원체로의 전환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방침이다. 원광치대 역시 결정을 내리기에는 이르다고 판단, 전문대학원 도입을 일단 유보하고 교수진 및 학교 운영자 측과 의견조율을 하고 있다.

치과병원